KÓKKOS

2020 JUL 7
VOL. 220

간호학과 제 9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6 일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흰 가운을 입은 선서자 48 명이 촛불을 들고 "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 " 을 선서하며 다짐하고 있다 . 관련기사 7 면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학교 총 예산의 47.6% 가 납입 등록금 비율

전공교육부장과 총학생회 간담회서 현안 등 논의

지난 6 월 3 일 오후 3 시 전공교육부장과 '하다' 총학생회 임원단의 간담회가 제 2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체육시설보수, 교육환경개선, 일립생활관 정비, 경건훈련 다양화, 예결산 공개 등 현안이 논의되었다.

▲ 제 2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장 모습

▲ '하다' 총학 : 농구장, 풋살장 바닥의 보수가 시급하다.

▲ 학교 : 총학의 요구는 당연하다. 학교도 우선순위에 놓고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혁신사업과 연계를 고려중이다. 총학과 협의해 보수토록 하겠다.

▲ '하다' 총학 : 밀알관 역사실을 학우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 열어 주고 도서관 장애인 출입게이트도 교체해 주기를 바란다.

▲ 학교 : 밀알관 역사실은 이미 열려 있지 않나? 안 열고 있으면 열도록 하겠다. 도서관의 장애인 출입게이트 교체는 예산의 틀 안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도서관은 책걸상 교체와 분진 제거가 이뤄졌다.

▲ '하다' 총학 : 일립생활관 난방이 취약하다. 보일러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 층 각 방의 창문 선팅이 필요하다.

▲ 학교 : 난방이 1 층에서 3 층에 닿기까지 열효율 전달이 약한 것 같다. 보일러는 계속 점검과 수리를 하고 있다. 보일러 교체나 선로를 바꾸는 것은 대형 공사다. 이 점을 이해해 달라. 선팅문제는 생활관장과 논의해서 접점을 찾아보겠다.

▲ '하다' 총학 : 잠재적 신자가 있는 점을 참작해 경건훈련을 다양화하고 문화채플 등 탄력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 없는가? 방학과제도 유연성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

▲ 학교 : 채플은 우리대학 교육의 기본틀에 속한다.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신앙훈련 (채플 포함) 과 교육은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방학과제도 그 일부이다. 학우들의 약 40% 가 교회 미출석자 및 잠재적 신자라는 점은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는 있겠지만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 '하다' 총학 : 많은 대학의 총학들이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학우들 중 일부는 이 문제가 학교에 제기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대학의 예산 결산이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

▲ 학교 : 이 문제는 3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겠다. 교육비 환원율, 대학 예결산 공고, 그리고 향후 추이와 우리의 입장 등이다.

3 면에 계속

미니설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갈 1:3)

김현광 목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 이다. 바울 당시 헬라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인 카이레인 대신 바울은 카리스, 즉 은혜라는 인사말을 전한다. 카리스, 즉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호의로서 복음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에이래네, 즉 평강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인 샬롬을 바울이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다. 롱게네커는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로 보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이 두 단어로 잘 요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린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강 같이 흘러나온다.

2 면에서 계속

1.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 환원율은 학우들이 납입한 등록금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190% 로 등록금대비 1.9 배를 교육비로 사용했다. 우리의 등록금 비중은 47.6% 이며 받은 등록금의 1.9 배를 교육비로 지출됐다는 뜻이다. 결론은 학우들이 납입한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교육비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2. 대학 예결산 공개

우리대학은 20 년 전부터 공인회계사에 의해 예결산서가 감사되었다. 당시 학교 규모로 보아 공인회계사의 감사는 요구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실천해 왔다. 언제나 회계장부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3. 향후 추이와 우리의 입장

등록금은 10 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비는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다. 대학평가 환경은 수업 및 행정 서비스 등 교육 분야의 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평가에서 우리는 잘 버티어 내고 있다. 앞으로도 능력 범위 안에서 지속해 갈 예정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학교에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는 시설 및 외부 대관 수입도 모조리 막아 버리고 있어 타격이 심각하다. 외부 후원금과 기타 수입까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학교 운영진들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흠모하는 대학을 향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이참에 총학 차원의 도움도 요청하고 싶다. 학우들이 휴학과 자퇴를 하지 않고 씩씩하게 학교에 나와 주는 것이 학교를 돕는 길이다. 왜냐하면 재학생충원율이 학교를 평가하는 지표 중 가장 큰 점수를 받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 국가가 장학금을 주고 그것이 학교의 재정에 큰 몫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총학이 대학과 파트너십을 발휘, 학우들에게 휴학 자제 및 복학 장려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간담회에는 남유진 총학 회장, 박대주 부회장 등 임원진 19 명이 참석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조윤경 전공교육부장, 유정선 일립교육부장, 김중완 행정본부장, 권경만 기획실장 등 학교 관계자 12 명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2020 학년도
제 2 차 직원 연수회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우리의 힘!'

▲ 강우정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0 학년도 제 2 차 직원연수회가 22 일 오전 9 시 갈멜관 305 호에서 개최되었다.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진행된 연수회는 예배와 총장권면, 혁신사업 운영 안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강우정 총장은 코로나 19 의 어려움에서도 직원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헌신을 다해줬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그는 "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이것이 힘이며 존재의 이유 " 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어 " 비성경적인 행위를 멀리하고 거룩한 습관을 유지할 것 " 을 당부하였다. 우리의 자원은 미약하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이어져 왔으며 그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가자고 권면하였다.

강규성 부총장이 2 차 년도 대학혁신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 혁신사업의 지향점은 세상을 변화시킬 밀알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직원들의 헌신과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동체적 의식으로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김중완 행정본부장이 대학정보보호와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해, 교학팀 김병수 대리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학생생활상담센터 신금주 차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전산팀 김덕원 계장의 개인정보보안교육이 자료화면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혁신사업
1 차 년도 평가 'C' 등급

전반적으로 부족, 혁신사업의 혁신성, 개방성, 보편성 요구

대학혁신사업 1 차년도 연차평가 결과가 지난 6 월 10 일 발표됐다. 우리대학은 'C'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보고서는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특징적인 지적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었다. 우수한 점은 첨단 학습 환경 구축과 학생 역량 강화 사업을 투자 우선 과제로 선정한 점, 자율성과지표값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 과년도 자료를 스스로 엄격하게 분석한 점, 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대학과 비교해 탁월하였고 양적 질적 변화도 구체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혁신사업의 파급효과가 기대 되며 지역 사회를 향한 성과 확산의 노력과 학내의 소통과 화합을 돕는 점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반면 보완할 점으로는 대학이 혁신사업으로 제시한 융합모듈전공제, 학사제도유연화는 연구만 진행되고 실적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4 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복음전도자를 제시하였는데 시대의 요구와 인재상 (복음전도자) 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산 사용도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2 차 년도에는 확충된 인프라를 이용한 목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가보고서의 특이한 점은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에서 똑같이 "운영성과와 우수사례의 혁신성과 개방성, 그리고 보편성이 보완되면 …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말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종합의견으로 3 가지를 요구하였다. ① 재정투자계획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 ② 자율성과지표의 목표 값 근거에 합리성과 도전성을 명확히 부여할 것. ③ 자체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 등이었다.

평가는 권역별로 등급이 구분됐다. 우리대학이 속한 수도권에는 53 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 A 등급 16 개 (30%), B 등급 26 개 (50%), C 등급 11 개 (20%) 대학이다. C 등급 대학은 재정지원도 삭감되어 2 차 년도 우리대학 지원액은 12 억 4 천 5 백만 원 (1 차 년도 14 억 6 천 6 백만 원) 이 배정되었다.

혁신사업단장인 강규성 부총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 등급을 주셨는데 이 또한 감사하다. 제시된 장단점 분석과 보완점을 2 차 년도에 적극 반영시키겠다. 이번 결과로 혁신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교육목적을 준비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KBU 로 거듭 나겠다" 고 다짐하였다.

밀알사회봉사단 단장
한진호 교수 임명

2020 년 대학보직 소폭 인사 발령

강우정 총장은 6 월 30 일자로 2020 년 대학 보직교수 인사를 발령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밀알사회봉사단 단장 한진호 교수, 성서학과 학과장 김웅기 교수, 대학원 교학처장 박태수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 업무 시행은 8 월 1 일이다.

▣ **일립교육부**
- ▲ 밀알사회봉사단 단장 한진호 (기초교육원) 교수

▣ **전공교육부**
- ▲ 성서학과 학과장 김웅기 교수
- ▲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최선희 교수
- ▲ 영유아보육학과 학과장 강정원 교수
- ▲ 교직부 교직부장 김형미 교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직)

▣ **대학원**
- ▲ 대학원교학처 처장 박태수 교수
- ▲ 일반 (신학) 및 신학대학원 주임 박태수 교수
- ▲ 일반대학원 간호학 주임 안현미 교수
- ▲ 사회복지대학원 주임 배진형 교수
- ▲ 보육대학원 주임 조혜경 교수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2020 년 1 학기 종강예배 유정선 교목실장

▲ 유정선 교목실장

2020 년 1 학기 종강예배가 19 일 12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고 유정선 교목실장이 ' 하나님의 약속 '(사 54 장) 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유 교목실장은 "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회복의 약속을 제시해 주고 있다 .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 따라서 우리 모두의 중심은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방학기간 중에도 믿음에 대한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주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다짐해가는 충성스런 종이 되어 주길 당부 " 하였다 .

강우정 총장은 코로나 19 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1 학기 종강을 맞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이번 사태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와 말씀 생활의 추구를 강조했다 . 1 차 년도 대학혁신사업에서 'C' 등급을 받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강화하여 2 차 년도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권면하였다 . 남유진 총학회장이 지난 1 학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구성원 모두의 지친 심신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였다 .

종강예배에는 학우 일부가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은 현장 중계된 온라인을 통해 함께 했다 .

최영태 (성서학과) 교수 정년 퇴임예배

“지난 23 년간 KBU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

▲ 최영태 교수

최영태 (성서학과) 교수의 정년퇴임예배가 지난 10 일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코로나 19 여파로 성서학과 재학생 일부와 교수 , 교직원 및 가족 친지가 함께 참석했다 .

최 교수가 ' 사명을 따라 사는 삶 '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사도바울은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해 헌신하였다 . 목표는 온 세계의 복음화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다 .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KBU 공동체로서 복음증거에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소명자로 거듭나자고 강조하였다 .

최 교수는 " 지난 23 년간 한국성서대학교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더해준 동료 교수 , 교직원 , 재학생 그리고 동문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 " 를 전하였다 .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대학이 종합대학체제로 전환할 당시에 최 교수가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 최 교수 내외는 지금까지도 대학교회 새벽예배에서 학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박태수 교수는 기도에서 "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복음전도자 한 길만을 달려온 그에게 제 2 의 삶에도 성령의 두루마리가 임하길 기도 " 하였다 .

제자들의 특송이 이어졌고 학교는 정년퇴임 감사패와 꽃다발 , 동료교수 및 교직원과 재학생까지 최영태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었다 .

최 교수는 지난 1997 년부터 우리대학에서 23 년간 헌신했다 . 그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서울한영대 신학석사와 연세대 신학과에서 기독교윤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본교 법인국장 , 기획실장 및 일립생활관장 , 대학원 교학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2014.4~2016. 4 월) 회장으로 헌신한바 있다 .

한국성서선교회
첫 여성 목사 탄생

권순실 목사, 한국성서선교회에서 안수

▲ 전영호, 권순실, 김정희, 구본길 목사 (왼쪽부터)

한국성서선교회(이사장 현희철 목사) 50 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권순실 목사가 첫 여성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다. 권 목사는 25 일 오전 11 시 중앙성서교회에서 진행된 목사 임직 예식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 고 서약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국성서선교회 첫 여성 목사가 된 권순실 목사는 "안수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린다. 부족한 자에게 부어준 귀한 사명에 헌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임직 예식에서는 권 목사 외에 본교 신대원을 졸업한 구본길(27 회), 김정희(31 회), 전영호(31 회) 목사도 함께 사명자로 서약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국성서선교회는 1969 년 한반도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선교활동에 임해왔다. 그 과정에서 여성 목사 안수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지난 1 월 21 일 '제 46 차 한국성서선교회 대의원 총회' 에서 여성 목사의 시취(試取)를 허용하는 헌장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개정안 통과로 신대원을 졸업한 여자 원우들에게 목사고시 응시의 길이 열리고 첫 번째 여성 목사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성서선교회 첫 번째 여성 목사가 된 권순실 목사는 중앙대를 졸업, 본교 신대원(32 회) 에서 M.Div. 학위를 받았으며 아가페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임해왔었다.

본교 신대원의 한 여성 원우는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권 목사가 한국성서선교회 첫 여성목사의 걸음을 뗐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이번 안수에 우호적" 이라며 반겼다.

안수식에 앞서 현희철(중앙성서교회 담임) 목사가 '붙들어 일으킬 자'(전 4:10~12)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명자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19 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기름부음 받은 목회자의 사명을 결코 등한시하지 말고 오직 주의 소명자로 헌신과 사역에 힘써 달라" 고 강조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지혜"
드디어 교실에서 읽기 시작

성서학과 BRC 종강예배, 박태수 교수

▲ 박태수 성서학과장이 종강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서학과 BRC 종강예배가 지난 12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수 학과장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17)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조지워싱턴과 링컨 대통령 곁에는 항상 성경이 놓여 있었다. 성경은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세상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혜와 능력을 얻으며 묵상을 통해 완전체를 낳는 최상의 교육임을 알아야 한다. BRC 수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두가 흠모하는 사명자로 성장시켜 준다며 말씀 안에 속해 배우고 확신하는 자의 삶을 강조" 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성서학과 여러분은 우리대학의 평형수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배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배의 밑창에 담겨진 평형수와 같은 귀한 존재들이다. 성서학과 학우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버티어 주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곽서연 학우는 간증을 통해 온라인 수업이 부담 됐는데 늦게나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와 결단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해주었다.

' 제 9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간호학과 48 명

" 생명을 살리는 귀한 등불이 되라"

▲ 선서자들이 4 학년 선배로부터 촛불을 점화 받고 있다.

' 제 9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이 26 일 오전 11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선서식은 강당 내부의 소등으로 드리워진 어두움 속에 선서자 48 명이 입은 흰 가운이 잔광과 함께 엄숙함을 자아내면서 시작되었다. 강당 전면에 4 학년 이재은, 문보연 학우가 든 두 개의 촛불이 서서히 어두움을 거둬 내는 가운데 선서자 48 명이 2 명씩 조를 이뤄 전면으로 나갔다. 선서자들이 차례로 촛불을 점화 받고 모두 자리로 돌아간 후 뜻 깊은 선서가 이루어졌다. "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강규성 부총장은 격려사에서 "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영광스런 주의 자녀 " 라며 48 명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 것과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삶의 순간에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과 성령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등불이 되어 달라 " 고 당부했다.

김조자 교수가 학우들 모두는 "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택된 자랑스러운 주의 소명자이다. 병원 실습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 주를 전하는 복음전도자로 노력해 달라 " 며 축사하였다. 유정선 일립교육부장도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이곳에 왔다며 말씀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명에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기도하였다.

선서식은 코로나 19 의 영향에 따라 선서자와 가족 그리고 재학생 등 최소의 인원만 참석해 이루어졌다.

오은주 교수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 선정

'글로벌 역량 및 ... 영어 수업모델 개발' 연구비 2 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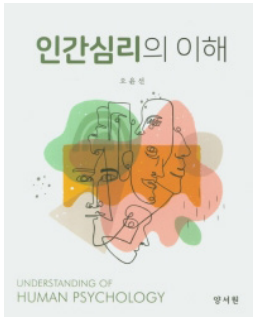
오은주 (기초교육원)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0 년 인문사회분야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 공모에 선정됐다. 채택된 연구과제명은 ' 글로벌 역량 및 세계시민교육 기반의 교양영어 수업모델 개발 ' 이다. 기간은 2 년이며 2 천만 원의 연구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연구는 대학의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성에 기반한 교양영어 수업을 개발, 역량중심의 교양영어교육 실행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변해 가는 세계화의 흐름 이해에 필수인 영어에 접근, 평생학습자로서의 동기 배양과 도전의식 등이 더해져 긍정적인 자신감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교수는 " 우리대학 학생들이 교양영어 수업에서 글로벌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의 축적과 자아 발전은 물론 세계 속의 전인적인 복음전도자로 세워지길 염원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우수 신진학자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학문 연구 전반 활성과 정착기반 강화에 목적을 담고 있다.

오윤선 교수 『인간심리의 이해』 출간



오윤선 (기초교육원) 교수가 『인간심리의 이해』 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심리학 전반의 포괄적 이해와 심화과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담아 증보판으로 저술되었다.

책은 심리 및 생리심리학의 기초와 학습, 발달, 성격심리를 비롯해 개념과 정의 및 유형 그리고 사회행동과 행복심리 등 총 12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근 들어 심리학은 시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맞물리며 학문의 양적 질적 성장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적 객관성과 유형을 통한 경험적 보편성 등이 고르게 반영되었고 시각적 자료와 도표가 배치돼 독자들의 가독성을 돕는다.

『인간심리의 이해』 / 오윤선 / 양서원 / 390p / 19,000 원

최정권의 은유한 GALLERY 2호

자화상

반 고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자화상입니다. 함께 지낸 고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고호가 상실의 아픔을 귀를 잘라서 표현합니다. 찢겨 나간 귀의 일부는 창녀에게 줍니다. 귀의 빈자리는 흰 붕대로 감아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화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려면 거울을 봐야 하는데 고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귀를 자른 후에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제 브뤼셀에서 제 그림이 4 백 프랑에 팔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그림이나 네덜란드의 물가에 비하여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값에 작품이 팔릴 수 있도록 계속 만들며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비록 그림 그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일 중 하나지만, 그림은 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입니다"

그의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그림은 가을날 사람들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린 '붉은 포도밭' 입니다. 그는 말했다. "기억으로 그린 그림들은 직접 나가 자연속에서 그린 그림들보다 덜 어색하고 더 예술적인 느낌을 준다" 그 예술적 그림이 팔린 겁니다. 겨우 한 점이지만 그는 희망을 봤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다. "어머니, 희망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무심해 보입니다. 무심한 얼굴 옆으로 그림 하나가 보입니다. 일본화가 Sato Torakiyo 의 그림을 나무 위에 그린 복사본인데 인상적인 사실은 고호가 원본과 다르게 자신의 감각으로 새롭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림 속 후지산은 힘 있어 보입니다. 그의 자화상은 언어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힘들수록 희망을 잡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송희경 5 백만 원 후원

송희경 전 국회의원이 성서대학살리기 「KBU2020 캠페인」 에 5 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송 의원은 지난 18 일 총장실에서 강우정 총장과 환담하며 "대학가가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어렵지만 한반도 복음화를 향해 달려온 성서대학의 복음전도자 양성 비전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선한 도움의 손길들이 더해지길 희망하였다."

송 의원은 제 20 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그는 국회내 4 차 산업혁명전도사로 불릴 만큼 ICT 분야를 중심으로 SW 산업진흥법 등 각종 정책 입법 수립을 왕성하게 펼쳐왔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대학 컴소학과에서 학우들의 전공수업을 지도해 왔다.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누계 114,640,599원 2020. 2. 21~2020. 6. 30)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1,792,045원)

송희경 전 국회의원	5,000,000	**홍설자** 이사	1,000,000
최영태 교수	2,000,000	**남명우** 장로(재미)	842,000
신원근 진학사 대표	1,200,000	**이경임** 동문	500,000
김병철 동문	1,000,000	**손순아** 동문	200,000

약정 후원자 (72구좌, 연간 약정 납입 예정액 8,700,000)

동문 및 가족			일 반
10구좌 장수진	2구좌 바르고복된교회 임수경	10구좌 김주아	2구좌 김종환 조혜령
5구좌 신상춘	이승환	2구좌 오도숙 김영희	
3구좌 김석환	**교직원 및 가족**	0.5구좌 정지용	
	30구좌 강 진		

합계 20,492,045원(일반후원 + 약정후원) 『KBU 2020캠페인』 목표금액 5억원(23% 달성)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C 등급의 사색

지난 6 월호 코코스의 총장의 편지를 받아 본 한 독자가 " 총장님 이번 편지까지 연속 3 번째 코로나 주제에요 "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그랬나 하고 돌아보니 그 분이 틀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 월부터 5 번의 총장의 편지 썼는데 그 중 한 번은 무감독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속도 아니고 3 번도 아닙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 5 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신문과 TV 화면을 통해 여러 번 텅 빈 장면을 보기는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황량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캠퍼스에 진달래가 필 때 코로나가 시작 되었고 그 때만 해도 교정에 신록이 우거지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기대는 기대일 뿐인가 봅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듣기 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당대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정보를 전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어 one point 기도를 올립니다. " 부디 아히도벨의 책략이 무효가 되게 해 주소서 ."

지난 5 월 초 우리가 대학혁신사업 1 차 년도 사업성과보고서를 내면서 "A 등급을 받게 해 주세요 " 라고 마음과 힘을 다 합하여 one point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one point 기도를 들으시고 후새를 통해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리셨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힘을 얻은 다윗은 전략적, 군사적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했고, 용장들을 결집하였으며, 결정적인 길르앗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이긴 하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번 C 등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는 " 하나님의 은혜 " 라는 강규성 부총장님의 간증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C 가 꼭 B 나 A 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거룩한 자리여야 한다는 점을 조용히 가다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

직원 컬럼
신지수 팀장(입학관리팀)

낚시

나의 취미는 낚시이다.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고 출조해서 3 번 중 1 번은 꽝이지만 그래도 내 취미는 낚시다.

입학관리팀에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다. 업무 파악도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책임자 위치에 덜컥 앉게 됐다. 학교에서 입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톱니바퀴처럼 순환된다. 이걸 잘 알기에 자리에 대한 압박감은 컸다. 그 당시 업무가 미숙한 상태의 나는 곧 터져버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었다. 탈출구나 퇴로도 없고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했다. 퇴근 후 집에 가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보니 자존감도 무너지고 불면의 날은 늘어갔다. 새벽 2 시에 잠들면 3~4 시쯤 깼다. 여러 걱정이 수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한 시간이 반복되자 미칠 것 같았다. 일상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 내가 못났나 ! 가끔 나쁜 생각마저 들락거렸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나는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다. 주님은 교회집사들과 낚시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에 추를 던졌다. 걱정거리가 바다로 첨벙하고 사라져가는 듯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기도가 솟구쳤다. 나 자신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무거운 짐들도 씻겨 내려갔다. 나는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요즘 세상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감행했다는 뉴스를 접한다. 풀어내지 못했을 여러 아픔에 나도 공감한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는 걸 추천하고 싶다. 어쩌면 시도할 용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한다. 딱 한 걸음만 떼어보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낚싯대라도 메고 훌쩍 떠나보라. 사방이 암흑인 곳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 머지않아 새로운 자신을 낚아 올릴 수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교수 컬럼
양혜경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6월의 첫 만남

내가 학교에 임용되고 첫 학기를 시작할 무렵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온라인 개강으로 바뀌었다. 강의를 녹화하며 4 월 초쯤,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대면 수업은 무한 연기되었다. 나는 안타깝고 답답했다.

그리고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1 학년 전공기초과목에 한해 대면 강의 진행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말로 다행스러웠다. 특히 올해 입학한 20 학번들은 풋풋한 1 학기 새내기 생활을 느껴 보지도 못하고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마친다면 정말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나 역시도 임용된 첫 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끝내면 아쉬움이 클 것 같아서 대면수업 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걱정과 기대감을 안고 시작된 첫 날 대면 수업,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낯설고 어색하였다.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많이 답답하고 숨까지 찼다. 또한 마스크 때문에 큰 목소리로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어느 때 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대면 수업 장점이 훨씬 많아서 좋았다.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통하고 표정과 대답을 확인해 가다보니 대면 강의하는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았다. 6 월초 다시 확진자가 급증해 조마조마 하였지만 예정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0 년 첫 학기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활들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의 소소한 시간마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었다. 앞으로 더 많은 강의가 있겠지만 이번 학기에 느낀 감정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루 속히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평안을 누려볼 날이 오길 소망한다.

외래교수 컬럼
조성수 교수 (과학적 사고의 이해)

진정한 자유인의 구성원 존재?

오늘날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 선택의 자유,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의 구성에는 자신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성원은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아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확신이 넘칠 수 있을까' 의아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이야말로 정의와 진리라는 아집과 주관 사이를 맴돌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의 전당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혜택을 받은 만큼 대학에 갚아 주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으로 있는 한,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해 일정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구성원의 판단이 진실로 믿음직하다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다른 구성원의 비판에 늘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자신은 물론 다른 구성원에게도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 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맛을 아는 구성원에게는 '저들'의 문제보다 '나'측의 악행이 훨씬 더 양심에 걸릴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구성원인 이상, 악행을 막지 못한 '나'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결국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과 통념' 지배의 사회에서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엄청난 노력을 하여 쟁취해야 하는 것은 진짜 자유입니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분노합니다

두 명의 손자 중에 큰 아이가 9 살, 둘째는 6 살입니다. 사돈어른은 "목사님 외손자 너무 예뻐하시면 나중에 배반당하실텐데…" 하고 농담 하지만 아들이 장가가서 낳아도 이렇게 예쁠까 할 정도로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큰 아이에 비해 둘째가 유난히 숫기가 없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갈 나이인데도 저를 만나면 한 번 쯤은 다른데 눈길을 주거나 시간이 지나야 다가섭니다. 금방 달려와 안기는 큰 아이와 달리 늦게 다가오지만 애교는 수준급입니다. 작은 얼굴을 비비며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아마 하찌는 이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가방에 들어가서 7 시간 있다가 생명을 잃은 아이의 기사를 보며 분노가 밀려오는 것이 어쩌면 비슷한 나이의 손자를 둔 저의 개인적인 분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옵니다

미국에 갔던 90 년대 초, 아이오와주립대학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흑인과 백인의 논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흑백 문제를 다룬 책안에 "흑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그 낙서 옆에다 흑인이 "너희도 이 나라를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바다에나 가라." 미국 인종문제의 심각함을 옆에서 보며 비슷한 일을 겪고 살았습니다. 백인경찰 무릎에 짓눌려 숨을 못 쉬던 흑인이 엄마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라는 단어가 'Mother' 가 아닌 ' Mama' 였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큰 것입니다. 그 엄마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조지 플로이드' 는 살해당했고 미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건 한인들의 상가입니다. 눈에 익은 필라의 5 개 상점들이 무너지고 불에 탄 걸 보며 교우들의 아픔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왜 죄악의 패턴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교우들에게 어떤가를 물어야 하나?' 그들을 두고 떠난 목회자의 머뭇거림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로 멈춘 일들이 저를 분노하게 합니다. 지금쯤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대절해 'ㄱ' 자로 굽은 한국 최초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에게 한국교회사를 듣고 한옥형 호텔에서 교우들과 식사하고 있을 텐데…. 매주 만나서 안아 줄 아이들은 안 보이고 아들과 꽁꽁 숨어 버린 부모들의 공포가 보입니다. 이게 '코로나 블루' 인가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에 지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낡은 세상의 죄와 증오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2

손바닥이 울리는 것은 _ 나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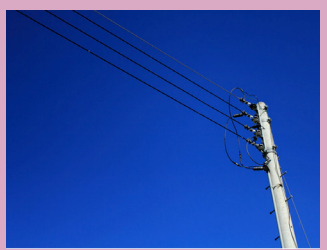
길에 거꾸로 처박힌 전봇대,
전선 몇 가닥이 헛뿌리처럼 드러나 있다

물과 양분 대신 전류를 실어 나르던
저 잿빛 나무는
서 있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지
곁가지 하나 내지 않고 제 생애를 다 했다

종일 비 내리고
처박힌 전봇대에 아직 전류가 흐르는지
손바닥이 징-징- 울린다

네 비참보다도
네 비참을 바라보는 나의 비참을 견딜 수 없어
내리친 것이 너의 뺨이었다니

손바닥이 울리는 것은
처박힌 전봇대 때문이 아니라
빗줄기 때문이 아니라
서 있는 일에만 몰두했던 나의 수직성 때문



https://falsenote.tistory.com/35

곁가지 하나 내지 않고 오로지 서 있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선 몇 가닥 헛뿌리처럼 드러난 채 길에 거꾸로 처박혀버린 내쳐짐뿐. 남아 있는 마지막 전류까지 적셔버리려는 듯 비는 온종일 내리고,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없어 참담함을 한껏 내리친 순간, '삶은 그리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야' 속삭이듯 징- 징- 전류가 흐른다.

그렇다. 삶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내쳐지면 어떠랴! 아직도 이리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 이제는 곁가지도 내고 잎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지. 진짜 피어남은 이제부터다!

대학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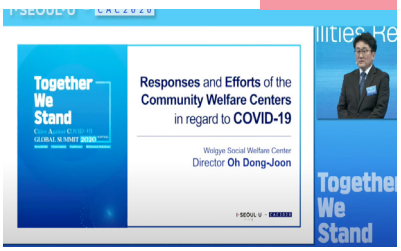
▲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영상을 시청한 후 소감을 나누고 있다.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선정

대학어린이집이 지난 6 월 서울시로부터 2020 년 상반기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에 선정 되었다.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이란 개정된 보육과정에 맞춰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대해 놀이 중심 · 영유아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전반에 대해 컨설팅 하는 걸 말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4 차례 진단과정을 통해 보육과정 전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별 맞춤형의 컨설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 의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1 회 컨설팅은 방문 대신 온라인 영상 시청과 나눔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어린이집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정된 보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은혜반 정혜란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을 소개하고 있는 브로셔의 한 장면

오동준 관장 대표연설, CAC 국제회의

지난 1~ 5 일까지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 온라인 국제회의' 가 서울시청 다목적홀 스튜디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화상회의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은 4 일차 사회복지 분야에 서울시 민관기관 대표 연사로 나서서 '재난 취약계층 공공지원 사례 및 공공의 역할' 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5 일간 진행된 회의는 기후 및 환경, 방역, 교육, 문화, 복지 등 15 개 세션으로 42 개 도시, 국내 전문가 70 명, 해외 전문가 86 명 등 총 156 명의 연사가 참여하였다. 지난 5 일 기준의 CAC 영상 조회수가 1,000 만 뷰로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 복지관은 코로나 -19 의 재난상황에서도 책임과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다.

[**홍유민 사회복지사**]

꿈빛 어린이집

▲ 어린이집 진입로가 생태친화형으로 단장하고 있다.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 선정

꿈빛어린이집이 서울시로부터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연 · 놀이 · 아이 중심의 조화와 교감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내 · 외부 놀이공간의 생태친화적인 환경까지도 배려한 선진형 유아교육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시간, 공간, 연령,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통합된 일과도 운영된다. 놀이주도하기, 생태친화 보육에서 교사와 부모의 역할 인식높이기 등의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실내 환경 개선, 부모참여프로그램, 생태친화 컨설팅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적합한 생태친화보육을 통해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박연희 치료사**]

성서 대학교회

▲ 5 주간의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함께 자리한 새가족 수료자들의 모습.

10 명의 새 가족 환영

성서대학교회는 6 월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그동안 중단하였던 새가족 교육을 다시 진행하였다. 21 일 주일에는 지난 5 주간의 교육과정을 다 마친 10 명의 수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 가족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모든 성도들은 귀한 새 가족을 성서대학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올려 드렸다.

성서대학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3 부 예배제를 7 월 19 일 (주일) 부터 시작한다. 오전 8 시 새로운 1 부 예배가 시작되고, 기존 10 시와 11 시 30 분 예배를 각각 2 부 예배, 3 부 예배로 변경된다. 새롭게 신설된 1 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공기 살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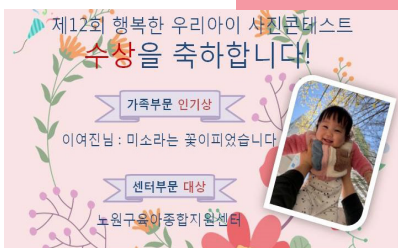
▲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줄 공기살균기가 새롭게 설치된 모습.

지난 2 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희실에 공기 살균기 2 대를 설치하였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실외활동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희실 이용 시간이 느는 아이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간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설치한 공기 살균기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99.9% 제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청정한 실내공기의 유지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더욱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감사하며 어린이집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고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어린이집은 코로나 19 대응 지침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공간과 내부를 날마다 소독하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푸른반 이수현 교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 가족 부문 인기상의 작품명, 미소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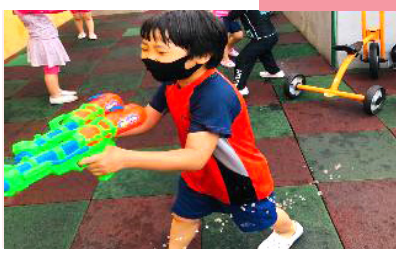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4 월 1 일부터 5 월 22 일까지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가 진행한 '제 12 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에 2,374 작품을 출품, 센터부문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가정 부분에서는 이여진 님의 '미소라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인기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로 힘든 과정에서 일상생활 속 영유아의 행복한 모습을 함께 공유하며 가정과 어린이집에 힘을 주고자 진행된 행사다. 우리 센터의 대상 영예는 관내 많은 영유아 가정들과 함께 참여해 이뤄낸 뜻 깊은 결과이다.

시상식은 영상 및 모바일 웹진으로 대체하며 수상작과 시상식 영상은 7 월 9 일 (목) 이후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육전문요원 김슬아**〕

상계5동 어린이집

신나는 물총놀이



▲ 유아들이 서로에게 물총 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난 19 일 긴급보육중인 만 5 세반 유아들에게 '바다'를 주제로 물총놀이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물놀이를 펼치는 건 한계가 있어 개별적인 물총놀이 방식을 취했다. 유아들은 물을 이용한 놀이자체에 흥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심신까지 씻겨주는 물놀이라서 몰입자체가 높았다. 또래들과 즐거운 물놀이가 마음을 함께 열어주는 기쁜 추억을 안겨 주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산발적인 감염으로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은 무기한 휴원 조치와 함께 긴급보육이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어린이집도 현원 70% 이상의 영유아들이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데 이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보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두둥실 돛단배 요리활동

▲ 유아들이 둥둥 배타고 동화의 중심이 된 돛단배를 요리로 만드는 중이다.

늘사랑어린이집은 지난 16 일 '두둥실 돛단배' 요리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그림책 '둥둥 배타고'를 읽고서 감상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함께 나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돛단배를 영유아들이 각종 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제시된 빵에 좋아하는 색깔의 후르츠링과 코코볼로 꾸미거나 빨대에 치즈를 빵 위에 고정시켜 완성해 갔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는 효과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향상시켜 주었다.

영유아들은 그림책을 감상한 후 상상력이 가미된 활동 등으로 창의성, 인지, 신체발달 등 전인적 발달까지 촉진하게 된다. 앞으로도 격월제 시간을 이용해 창의적인 요리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즐거운반 김한솔 교사**]

충무 어린이집

모종 심기

▲ 옥상 텃밭의 모종을 향해 유아가 물을 주고 있다.

지난 3 일 충무어린이집 7 세 하늘반 친구들이 어린이집 옥상 화단에서 모종 심기를 진행하였다. 선생님과 함께 손으로 흙을 만지며 감촉을 기억하고 가져온 모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까지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이다. 모종심기는 자연의 틀 안에서 친구들이 쏟은 정성과 손길 위에 시간이 더해져 꽃과 열매가 맺히는 소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다.

유아들은 모종을 돌보며 자라는데 필수 요소인 물을 주고, 잡초와 풀을 수시로 뽑아 생육환경조성에 애정을 쏟곤 한다. 그러면서 "이만큼이나 자랐어!" "내일도 또 와서 잘 자라라고 물을 주고 싶어요" 등으로 생각의 틀까지 성장하는 귀한 배움터가 된다. 이외에도 친구들과 협동심, 성취감과 함께 생명의 원천을 익혀가는 장점이 있다.

[**충무어린이집 김한나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진(총장)	962만원(운영)	박태수(성서학 교수)	12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10만원(운영)	진학사	120만원(장학)
송희경(외래 교수)	500만원(장학)	김병철(동문)	100만원(운영)
이인영(한국어교육원장)	300만원(운영)	도서출판 현문사	100만원(간호)
강혜정(설립자 가족)	4000달러(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최영태(성서학 교수)	220만원(성서)	임정옥(동문)	10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강일아	1000달러(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박경옥 최승주 윤솔이 손화진 서정민 전병준 배은휘 송순덕 황형록 이지은 허영숙 임은진 홍자영 정영교 심두한 고재민 구진경 박철교 우승연 맹현진 김다예
2구좌 김지원 이선영 김기옥 이상복 이유진 이승환 최선옥 김복녀 길득희 정주영 김미숙 김재원 윤광길 임수경
3구좌 김동교 양연선 김석환 홍예지
5구좌 신상춘

교직원 및 가족
1.5구좌 정지영
3구좌 방진희 이호섭
5구좌 이복남 이광삼 최사랑 김원빈
6구좌 임환석
10구좌 원영희 양혜경 김주아
11구좌 최지은
20구좌 정해덕

부설기관
1구좌 문유나
4구좌 박미선
10구좌 장수진

밀알교회
1구좌 서효정

성서대학교회
1구좌 임숙정

주향교회
3구좌 주향교회

수원교회
1구좌 홍성호

이레교회
1구좌 이채은

풍암교회
1구좌 윤은정

효성교회
1구좌 진은숙

일 반
2구좌 조혜령
3구좌 김종환
5구좌 강한성 이천화

단체 및 기관
3구좌 푸른동산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김샛별 민이삭 정다운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희조 금동옥 기상혁 김가영 김가희 김다솔 김도훈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음 김보희 김선근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희 김지선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홍철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 융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용아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수정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윤솔이 윤영원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현묵 윤혜자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영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호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영교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화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지유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선화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성광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구연민 국소영 김기옥 김미나 김미향 김민정 김병렬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노한나 류충열 마혜진 박경수 박대우 박재송 방민지 배민정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양승용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춘석 이충희 임은희 임지현 장재원 장정인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최상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한상장 홍진옥 홍혜주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다예 김동교 김세련 김우선 김종숙 김태영 김현아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지원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양연선 양혜영 오유경 이길순 이남희 이성은 이안나 이우진 이윤성 이재국 이지연 이현지 이혜민 인지은 장영훈 장혜란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예린 홍석화 홍예지 황영숙

4만원 민찬양 박주은 신은진 이은애 전영희 정성종 정주영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남영란

기부자 명단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송복순
안선례 양원석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은혜 정예나 조연정
조유진 조준식 천유림 최종건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이주연 정동주
8만원 임연식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임현필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50만원 이경임
100만원 김병철 임정옥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선경
김양순 김은이 김혜미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민희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윤효심 이광승
이나라 이동기 이명희 이성령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정창금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재숙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이마리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재임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6만원 안태유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애란 김영직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양윤식
윤경민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민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정진주 조영채 조철남 조형섭
하희수 허윤민 홍세영 황찬범
요시다고조
1만5천원 정지용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진 김유진
김장호 박태용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박만순.조선오
3만원 김덕원 김미숙 김성호 김은영
김창현 박성범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혜경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이호섭 전영호
5만원 강지원 강지홍 권순범 김덕현
김현동 박인혁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이광삼 이정희 장정순
한재희
6만원 강영숙 이성아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신금주
안정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은광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상열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1만원 김중완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이강동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4만원 강일석
25만원 임지영
30만원 최선희
100만원 홍설자
120만원 박태수
121만원 강일아
220만원 최영태
245만원 오영돈.강혜정
300만원 이인영
500만원 송희경
96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문유나 오윤아 이다솜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2만원 장윤정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박천순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이선정 이효빈
임지혜 장수진 탁지혜 호한나
4만원 박미선
5만원 박연희 서영숙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6만원 변송이
10만원 강진아 권정아 이인경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정나나
차 건
2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곽성국.장은경
3만원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2천5백원 박윤주
5천원 강태호 곽규상 김영숙 이상록
이영진 이 천 장인순 정현숙
정희선 황성모
1만원 강경혜 고미숙 권정화 김겸일
김다혜 김덕현 김동준 김민선
김배열 김병철 김봉준 김상은
김승환 김신덕 김예주 김윤선
김인영 김정숙 김주혜 김지윤
김지환 김진철 김현광 김혜진
김희자 김희현 남윤주 남지영
류 강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주형 박태수
방미경 백순옥 서 훈 신양금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종철 용정자 유중엽 이가은
이경신 이관영 이길우 이노선
이대영 이대한 이소정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정철 이종옥
이지수 이진호 임성일 임숙정
임용택 장근문 장홍림 전옥순
정나영 정도유 정무실 조건희
조병하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미숙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허진순 이에스더
1만5천원 고경숙 김동수 김영헌 유상호
최우림
2만원 김민자 김사천 김은미 김인자
김향순 무 명 박성환 박은유
박천순 서윤희 송인희 양태환
오경모 유정선 이대우 이승림
장혜린 전광심 정명수 정선희
정승연 조성민 조영희 황서린
2만5천원 김순옥
3만원 강유진 김문응 김원태 김일선
김현석 김혜옥 박 선 송재철
유은주 이은영 조혜경 최선희
4만원 김은순 장진희
5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신재은 유형창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최정권
한진호
15만원 김웅기
61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홍성호
2만원 김일섭 반요셉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김옥자
5만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권사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무 명 한상욱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15만원 이혜선
24만원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2만원 안지선
10만원 평화교회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일반

1만원 강소라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병훈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상은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진성용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윤미선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김종무 서미혜 석지현
오계순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12만원 강승태
30만원 박순정
84만원 남명우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마음교회/맘키즈푸드/목양교
회/열매맺는교회/이음기업/행
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동신자원/바르고복
된교회/성복중앙교회/아인안
경원/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
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꿈꾸는교회
/새샘교회/우리교회/태광성서
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상
일교회/예일에드컬/월계성서
교회/일동성서교회/천성교회/
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
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주)이레E&C이레
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
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두
암산업(주)/만나교회/상록교회
/오감발달연구소/철원제일교
회
13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예강교회/제트전
기/황금부동산
30만원 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80만원 염창중앙교회
100만원 도서출판현문사
120만원 진학사
150만원 한국장학재단

소계(20200521~20200620)
70,959,391

누계(20200301~20200620)
218,243,913